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11.13.(목) 배포 2025.11.13.(목) 10:00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에 새 식구가 찾아왔어요!

- 백두산호랑이 '미령' 이주 및 기초 건강검진 완료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대전 오월드에서 지내던 백두산호랑이 '미령'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으로 이주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름답고 영리한 호랑이라는 뜻을 가진 '미령'은 2021년 5월생 암컷 백두산호랑이다.

지난 9월 대전 오월드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백두산호랑이 '미령'의 이주는 무진동 향운·향습 차량에 수의사 및 사육사가 전 구간 동행해 상태를 상시 점검하며 지난 10월 22일 안전하게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이송됐다.

이주 직후 '미령'은 기초 건강검진을 마쳤으며, 현재는 내실에서 환경적응 증으로 '미령'의 안정 수준과 내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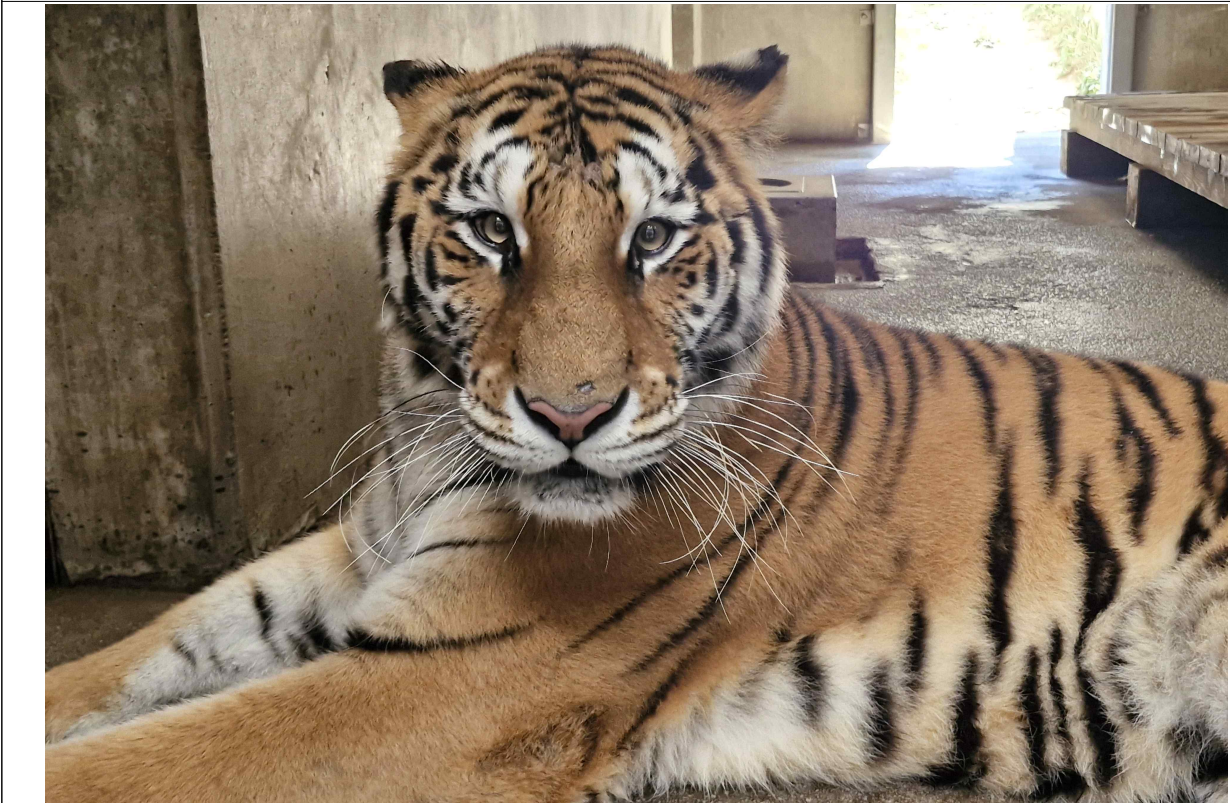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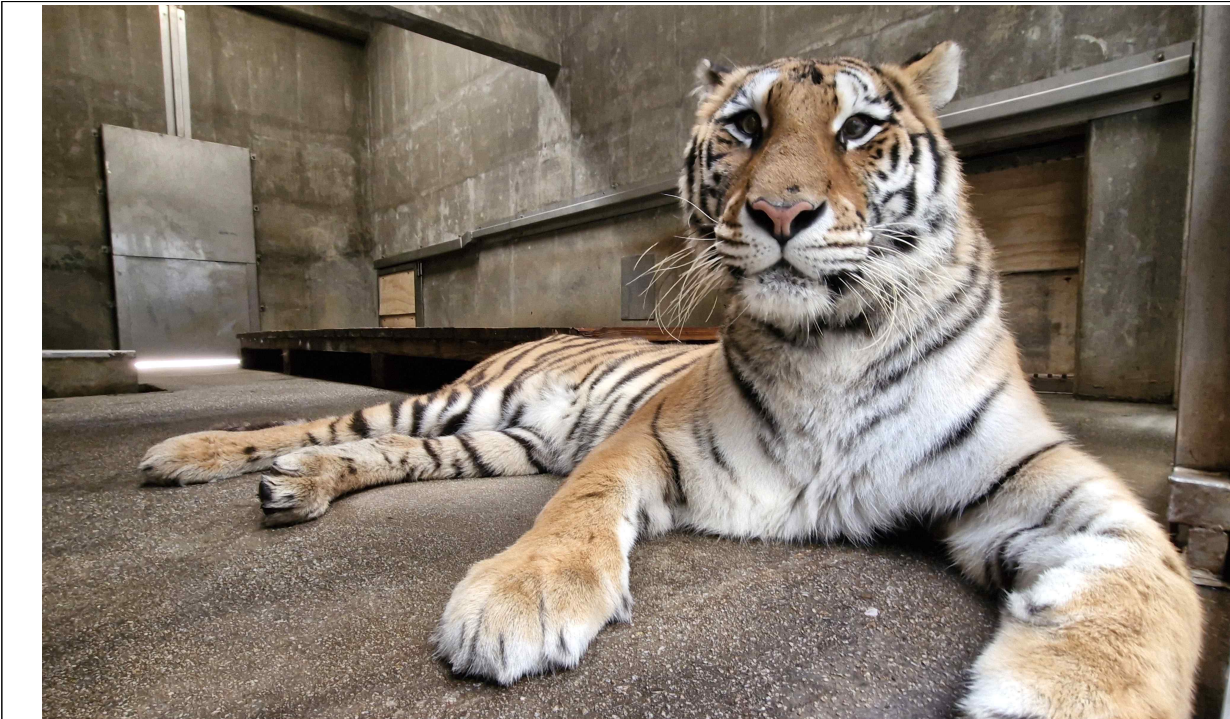
축구장 5.4개 크기인 3.8헥타르(ha)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은 백두산호랑이의 자연 서식지와 가장 가깝게 조성됐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로 호랑이가 적응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백두산호랑이 '미령'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가족이 됨에 따라 우리(수컷, 14세), 한(수컷, 11세)·도(암컷, 11세) 남매, 태범(수컷, 5세)·무궁(암컷, 5세) 남매 등 5마리의 호랑이와 함께 살게 됐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백두산호랑이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식구로 맞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대전 오월드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모든 백두산호랑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백두산호랑이보전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태환 (054-679-0976)
		담당자	대 리	이한경 (054-679-097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지난 10월 22일 대전 오월드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으로 온 백두산호랑이 '미령'